

통일 칼럼

북한 삼지연의 화려한 변신

'백두산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삼지연시의 풍경이 급변하고 있다. 호텔 5곳이 한꺼번에 준공되며 북한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선 해마다 당 간부와 근로자, 군인 등이 백두산 탐사 행군에 참가한다. 이른바 '백두의 혁명정신'을 새기고 대오를 지어 걸이를 다지는 게 겨울철 연례행사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백두산 탐사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거점이 있다. 바로 백두산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사적지이자 김정일의 고향이라 주장하는 삼지연이다.

북한에선 김 씨 일가를 지칭하는 이른바 백두 혈통이 시작된 성지로 추앙받으며, 그 상징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백두산 하면 혁명의 성지로 삼지연 하면 뿌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거 행군을 위한 전초기구나 숙영지 정도로 여겨졌던 이곳이 최근 들어 몰라보게 달라진 모

습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식 고급 호텔들이 잇따라 들어서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말 준공된 밀영 호텔에서는 주민들이 눈 쌓인 야외 온천을 즐기며 바비큐 파티를 벌이는가 하면 함께 개장한 이갈 호텔에서도 주민들이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헬스장에서 운동에 열중한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라는 게 탈북민의 증언이다. 북한은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백두산 인근 삼지연의 대

적적인 관광지구 개발에 착수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현대식 고급 호텔 5곳이 한꺼번에 삼지연 관광지구에 문을 연 것이다.

특히 밀영호텔과 이갈호텔 준공식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시일을 행기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삼지연의 변화를 강력히 선전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아울러 해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마치 중국

의 고급 호텔들을 옮겨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중국의 온천이 딸린 호텔로 보편한 4성급, 5성급 호텔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백두산은 9월이면 벌써 첫눈이 내릴 만큼 혹독하지만 그만큼 장엄하고 신비로운 풍광을 사시사철 자랑한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하의 관광산업 계획이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도한 원산-갑파 해안관광지구 역시 지난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문을 열었지만 갑자기 외국인 방문을 금지하는 등 불안정한 운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삼지연은 북한에서 강인한 의지를 상징하는 이른바 백두산의 칼바람 정신을 강조하며 혁명의 성지로 선전하던 곳이다. 화려한 휴양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인 삼지연 관광 사업이 외화벌이가 될지, 체제 선전용 전시물에 그칠지 주목된다.



정복규
논설위원

기고문

중동 상황 속 농자재 수급 안정 '총력'

봄철 영농시기를 맞아 농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료와 농업 필름 등 주요 농자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에서는 가격 급등이나 품귀 현상을 언급하는 보도도 이어져 영농철을 앞둔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농업용 요소는 전량 수입하고 있고,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대체 수입산인 동남아의 수입가격이 전년 대비 63.6% 가량 상승하는 등 폭락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기관·단체의 현장점검 결과 현재 농자재 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농 현장에서는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료는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전년도 사용·판매량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 역시 연초에 결정된 수준(87만1,000원/톤)을 유지하고 있다. 비료 전체 물량의 97%가 농협을 통해 공급되며, 향후 가격 인상 시에도 추경(115억원)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지원 사업이 반영되어 농업인 부

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고 기간 시 7월 말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 일부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하여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월별 구매량 제한을 통해 가수요 및 사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농업용 필름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일부 민간 시장에서 가격 인상이 있으나, 농협을 중심으로 영농철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지역 간 물량 조정을 통해 공급이 관리되고 있다. 고추, 옥수수, 감자 등 발작물 재배 시 사용하는 멀칭 필름은 봄철 영농 수요분이 확보된 상황이며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간 물량 조정을 통해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하우스 필름의 경우 전체의 67%가 9~12월에 사용되므로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원료공급 중단 우려 시 산업부에 원자재 배정 등 협조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약 또한 올해 사용될 원재 소요량



한중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의 90% 이상이 사전에 확보되어 있고, 중동 수입 비중이(이스라엘, 전체 0.3%) 낮아 중동전쟁에 따른 농약 가격 변동 요인은 없다.

정부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농자재 가격과 재고를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실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사재기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별 구매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간 물량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 현장에서는 비료의 적정 시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필요

이상으로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토양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표준시비 기준과 비료 처방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농업인이 작물과 토양에 맞는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퇴·액비 활용을 경축순환 활성화, 에너지 절감 등 자원 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 부처가 협의중이다. 적정 시비는 농가 경영비 절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기도 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농업의 최일선 기관으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농업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

지금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영농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과장된 정보는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하고 수급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필요에 맞는 적정량의 농자재를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사재기 등 과도한 수요로 인한 시장 불안을 예방하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적정 시비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설

사진작가 김지연의 계남 정미소

전북 진안군 마령면 계남정미소는 쌀을 찻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와 인정을 쌓아가는 '특별한 정미소'로 거듭났다. 이곳의 사진작가 김지연 씨에게 '정미소'의 기억은 각별하다.

김씨의 정미소 기록 작업은 오래 전 일이다. 이미 1999년 시작했다. 시골 노인들께서 수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시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에게 '정미소 사진'은 자신의 삶 속에 묻혀있던 것들을 하나씩 건져 올리는 작업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정미소는 급격하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김씨는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정미소를 보존 차원에서 하나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때마침 마령면 계남정미소가 폐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갔다.

정미소 주인은 김지연씨에게 어렵게 정미소를 내놨다. 김씨는 정미소를 전시공간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60평 남짓한 정미소는 전시관으로 잘 꾸며졌다.

이름도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로 붙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살아온 기록을 정리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 형태와 역사를 사진을 통해 만나게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낮은 앨범에서 꺼내는 사진들은 계남마을 사람들의 흔적풍경, 마을잔치, 남매계 모임, 졸업사진, 수확여행 등 100여점이다.

김씨는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 개관전으로 '계남마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추억의 사진들을 전시했다. 사진전이 열리며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부모나 가족사진이 걸린 전시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다.

김정배 13번째 개인전 '담과 돌'

김정배 13번째 개인전 '담(談)과 돌(石)'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열렸다. 김정배 작가는 '담(談)과 돌(石)'을 통해 이 세계를 이루는 농(農)과 담(談)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는 농담의 차이에 따라 존재가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상태, 즉 '사라졌다'지만 사라지지 않은 존재에 주목한다.

전시는 특정 대상을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여기서 '담(談)'은 단순한 열음이 아니라 경계로 작동한다. 그 위에 놓인 '돌'은 물질의 지속성과 존재의 무게를 상징하지만,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잠정적 상태로 남아 있다.

중요한 매개로 등장하는 한지는 단순한 재료를 넘어, 관계를 생성하는 구조로 작용한다. 겹겹이 쌓인 한지는 서로 닿고 스치며 불안

정한 접촉을 만들어내고, 이는 시간의 축적과 통과의 흔적으로 이어진다.

작품의 가장자리에 남겨진 불의 흔적은 사진이 지나간 이후에 드러나는 경계이자, 관계가 종료된 지점을 상징한다. 작가는 '무엇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글자음조각가'로 활동하며 시인, 문학평론가, 시각예술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글자음조각가'의 한 뼛 미술관·월간 그리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예술 프로젝트 그룹 '인문밴드레이' 멤버로 활동 중이다.

현재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및 음악문화학과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인문예술 실험을 병행하고 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